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고전 비평은 결코 독자를 다룬 적이 없다. 고전 비평에서는 저자 이외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비평에서 독자는 역사도 전기도 심리도 없는 사람으로 재탄생한다. 그는 이미 씌어진 것들의 흔적을 한곳에 모아 새롭게 쓰는 자다. 그러므로 누군가 고전 비평에서처럼 인본주의라는 이름 아래 위선적으로 독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이 새로운 글쓰기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가소로운 일일 터이다. 이제 우리는 독자의 새로운 글쓰기를 위해 저자의 신화를 전복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 창작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완성된다. 작가는 자기가 시작한 작품의 완성을 독자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되며, 작가가 작품의 본질적 요소로 파악되는 것은 오로지 독자의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문학작품은 하나의 호소다. 작품을 쓴다는 것은 작가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이 드러내고자 한 바를 독자에게 객관적 현실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작가는 다만 독자에게 호소할 뿐이고, 그의 작품이 어떤 효과를 가지려면 독자가 자유롭게 그 작품을 갱신해야 한다.

(다) 고전은 한 시대의 특정한 사회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관심을 반영하여 선별한 작품이다. 고전이 선별되는 과정에는 작품의 직접 생산자(작가·필사자·인쇄업자 등), 작품의 가치를 생산 또는 재생산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소유하려는 소비자나 청중, 그리고 소비자와 청중을 만들어 내는 관계자 및 제도·기관(이를테면 후원자·사원·학교·박물관·출판사·정치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가치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되고 보존되며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 1] 독자와 저자(혹은 작가)의 관계에 관해 (가)와 (나)에 제시된 입장을 비교하시오.

[문제 2] (가)와 (나)에 나타난 독자에 대한 공통된 이해 방식을 (다)의 맥락에서 평가하시오.

|                      |                                                                                                                                                                                                                                                                                                                                                                                                                                                                                                                                                                                  |
|----------------------|----------------------------------------------------------------------------------------------------------------------------------------------------------------------------------------------------------------------------------------------------------------------------------------------------------------------------------------------------------------------------------------------------------------------------------------------------------------------------------------------------------------------------------------------------------------------------------|
| <p>활용<br/>모집단위</p>   | <p>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사회복지학과 제외)  <br/>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윤리교육과</p>                                                                                                                                                                                                                                                                                                                                                                                                                                                                                         |
| <p>문항해설</p>          | <p>◦ (가)와 (나)는 모두 저자와 독자의 관계를 다루면서 공통적으로 독자의 역할에 더 큰 의미를 둔 글이다. (가)는 저자의 죽음을 통해 독자가 재탄생된다는 입장이고 (나)는 저자가 독자에게 호소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는 다소 고전적인 입장이다. (가)와 (나)의 유사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태도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p> <p>◦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글쓰기의 완성은 독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는 독자의 자율성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에 따르면 소비자나 청중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학교나 출판사, 도서관 등과 같은 여러 제도와 기관들이다. 결국 독자와 저자의 2항 관계는 생산(저자), 소비(독자), 유통(제도)의 3항 관계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와 (나)의 글쓴이들이 이상적으로 그려낸 것과 다르게, 전체 독서 시장에서 독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로부터 적절히 유추하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p> |
| <p>출제의도</p>          | <p>[문제 1]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두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절히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p> <p>[문제 2]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제시문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논리적 사고 및 응용력을 평가함</p>                                                                                                                                                                                                                                                                                                                                                                                                                                       |
| <p>교육과정<br/>출제근거</p> | <p>[개념] 고전, 저자, 저자의 권위, 독자, 독자의 자율성, 글쓰기의 주체, 소비자로서의 독자, 유통, 출판</p> <p>[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br/>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p>                                                                                                                                                                                                                                                                                                                                                                                                                    |

자료출처

[교과서]

김동환 외, 《국어》, (주)교학사, 22-53, 369-370, 386-387쪽  
 류수열 외, 《국어》, (주)금성출판사, 164-173, 192-223쪽  
 고형진 외, 《국어》, 동아출판, 172-192, 208-247쪽  
 신유식 외, 《국어》, 미래엔, 74-89, 160-173, 338-372쪽  
 민현식 외, 《국어》, 신사고, 14-65, 248-271, 200-213쪽  
 이삼형 외, 《국어》, 지학사, 77-81, 113-141, 217-253쪽  
 최원식 외, 《국어》, 창비, 30-57, 170-195쪽  
 이성영 외, 《국어》, 천재교육, 318-333, 387-421쪽  
 박안수 외, 《국어》, 비상에듀, 12-19, 218-237쪽  
 박영목 외, 《국어》, 천재교육, 29-38, 46-94, 390-435쪽  
 민병곤 외, 《화법과 작문》, 미래엔, 94-103쪽  
 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28-85, 114-133쪽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22-41, 74-105, 134-151쪽  
 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20-75, 102-121쪽  
 서혁 외, 《독서》, 신사고, 22-79, 118-133쪽  
 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54-81, 98-135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24-73, 96-115쪽  
 류수열 외, 《문학》, (주)금성출판사, 58-91쪽  
 김창원 외, 《문학》, 동아출판, 86-111쪽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57-116쪽  
 한철우 외, 《문학》, 비상교육, 58-129쪽  
 이송원 외, 《문학》, 신사고, 66-129쪽  
 정재찬 외, 《문학》, 지학사, 68-125쪽  
 최원식 외, 《문학》, 창비, 72-133쪽  
 김동환 외, 《문학》, 천재교과서, 77-151쪽  
 정호웅 외, 《문학》, 천재교육, 70-131쪽  
 조정래 외, 《문학》, 해냄에듀, 80-121쪽  
 석은동 외, 《심화 국어》, 상문연구사, 8-41, 56-69쪽  
 손영찬 외, 《사회·문화》, 미래엔, 12-21쪽  
 신형민 외, 《사회·문화》, 비상교육, 11-22쪽  
 서범석 외, 《사회·문화》, 지학사, 13-20쪽  
 구정화 외, 《사회·문화》, 천재교육, 13-22쪽  
 김영순 외, 《사회·문화》, 교학사, 10-29쪽

[기타]

롤랑 바르트(김희영 옮김), 《「저자의 죽음」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장 폴 사르트르(김봉구 옮김),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3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역음(왕숙영 옮김),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